|  |  |  |  |  |
| --- | --- | --- | --- | --- |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보도**  **자료** | **보도시점** | **배포일** | **매수** |
| 2023.6.22(목)  오전부터 | 2023.6.20(화) | 3매 |
| **담당자** | 박남영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  김민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연구원 | | |
| **연락처** | 070-4262-5159 / nypark@kosif.org  070-6617-7961 / mina0219@kosif.org | | |

|  |
| --- |
| **국내 금융기관 보유 화석연료금융 자산 총 118.5조원**   * **화석연료금융, 공적금융이 민간금융보다 1.5배 많아 -** * **석탄 뿐 아니라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 수립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에 기후 리스크 적극적 반영 필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2022 화석연료금융 백서> 발간**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금융 전체를 분석한 최초 보고서** |

국내 금융기관(공적, 민간)의 **화석연료금융 총 자산은 118.5조 원(2022.6.30.기준)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석탄 자산은 49.2조 원, 천연가스와 석유는 61.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양이원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지원 실태를 분석한 <2022 한국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석연료금융 중 석탄금융만의 규모만 추산해 왔으나, **석유와 천연가스 금융자산 규모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화석연료금융 총자산 118.5조 원은 대출, 채권, 주식투자만 합산한 규모**다. **본 보고서의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간보험사의 부보금액(보험)인 94.9조 원[[1]](#footnote-1)을 포함하면 213.4조 원**에 이른다. **이 규모는 올해 정부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2012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누적했음에도 37.2조 원에 불과해 투자 비대칭이 매우 심각**했다.

공적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화석연료금융 자산은 61.8조 원으로, 101.7조 원의 60.8%로 39.9조 원인 민간금융기관보다 1.5배 많았다. 이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 지분(약 20조 원)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주의 : 본 보고서에서 화석연료금융 분석 자산을 118.5조 원이 아닌 101.7조 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 118.5조 원에서 국민연금의 화석연료금융 금액인 16.8조 원을 제외했기 때문임. 이는 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에는 천연가스와 석유 금융 부문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연료간 분석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임. 국민연금은 석탄금융으로 7.3조 원, 석유&가스금융으로는 9.5조 원임)***

**[그림1] 공적금융기관 vs. 민간금융기관 화석연료금융 자산과 비중**

텍스트, 폰트, 번호,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연료별로는 석탄금융 49.2조 원, 천연가스금융 30.2조 원, 석유금융 22.3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천연가스와 석유금융의 총액은 52.5조원으로 석탄금융보다 3.3조 원이 더 많았다. 이 수치는 석탄만이 아니라 천연가스와 석유를 포함한 전체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그림2] 화석연료별 금융자산 규모 및 비중**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원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보고서는 “화석연료금융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 수립, 탈석탄법 제정 등의 노력 이외에도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기후금융, 녹색금융, 더 나아가 지속가능금융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으로 “**금융규제 당국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를 적극 고려하고, 유럽연합의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처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후 등 공시를 의무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고 있다. 2021년에는 재생에너지 3,670억 달러, 화석연료 1,190억 달러로 재생에너지에 투자가 3.1배 더 많았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금융 총 잔액은 118.5조 원으로 전년대비 1% 감소했을 뿐이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7.2조 원에 그쳤다"며 "여전히 화석연료 자산에 대한 투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석탄만이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 산업에 금융기관이 아낌없는 연료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 수치로 밝혀졌다”며 “금융기관은 2050 넷제로의 관점에서 2030년 중간목표를 포함한 장기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

1. 부보금액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서 국내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및 투자정책을 분석하여 2023년 3월 29일 별도로 발간한 <Insuring Our Future Korea Scoreacard 2022>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음 [↑](#footnote-ref-1)